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부갈등과 양육행동간 관계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

이형실*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Parenting Behavior of Young Children’s Fathers

Hyong-Sil Lee *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여 부부갈등과 우울, 양육행동의 관련성과 더불어 부부갈등, 우울, 양육행동이 관련되는 과정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우울, 양육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 부부갈등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은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부갈등은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우울을 통해 양육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우울을 통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부부갈등과 우울, 양육행동의 관련성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키워드 : 부부갈등, 우울, 양육행동, 아버지, 유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parenting behavior of fathers. The data from fathers of 1703 4-year-old children participating in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was analyzed. Findings of this study fro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indicated that marital conflict was associated positively with depression. Parenting behavior was predicted by depression. Marital conflict had a negative effect on parenting behavior. This study showed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parenting behavior were mediated by depression.

Key Words : Marital conflict, Depression, Parenting behavior, Fathers, Children

1. 서론

영아와 유아를 양육하는 시기에 부부간 만족과 적응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1], 더구나 영아나 유아를 둔 어머니는 우울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된다[2]. 이 시기에 부모가 경험하는 부부갈등이나 우울은 자녀 발달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된다. 따라서 자녀의 발달 초기에 부모의 부부

갈등, 우울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주로 다루었으나, 최근에는 자녀의 발달에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연구들도 자녀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아버지를 포함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는 부족한 상태이

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의 부부갈등, 우울과 양육행동의 관련성을 분석한 국내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부부갈등은 당사자인 부부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신체, 정서, 사회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유아기 자녀에게는 그 영향력이 더 중요하게 부각된다. 또한, 우울한 부모는 부정적이고 강압적인 자녀양육 방식을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자녀의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3]. 부모의 우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울이 모두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4,5], 아버지가 우울할수록 자녀의 문제행동도 증가한다고 밝히면서 아버지 우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6].

부부관계에서의 갈등은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 및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된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부부관계에서의 적대감은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적대감과 관련된다[7]. 또한, 부부갈등은 엄격하고 강압적인 양육과 관련되며, 그리고 거부적인 양육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8]. 부부갈등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9-11], 부부관계는 부정적인 자녀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부부갈등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비효율적 양육과 관련이 있으며[13],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만성적 부부갈등은 영아에 대한 민감하고 적극적인 양육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이 있을 때 아버지는 자녀에게 덜 긍정적이고 보다 더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보였다[14].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온정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15]. 즉, 아버지는 결혼생활에 만족할수록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나타냈으며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보였다. 한편, 유아자녀의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통제적 양육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6]. 아버지가 인식한 부정적 부부 특성이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온정적 양육태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17].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부갈등이 있을 때 서로 다른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밝힌 연구도 있다[18]. 부부갈등이 심해짐에 따라 어머니는 자녀에게 더 간섭적이고 비판적인 반면에 아버지는 자녀에게 덜 관여하고 더

물러서는 경향을 보였다[19]. 부부갈등은 어머니보다 아버지에서 더 비판적, 강압적, 통제적, 지지적이지 못한 양육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어머니보다 부부관계에 더 민감하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다[7].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부부갈등에 더 직접적으로 반응하며, 이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우울한 부모는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잘하지 않고 화를 잘 내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21].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우울과 아버지의 우울에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아버지의 우울이 어머니의 우울보다 자녀의 문제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며, 이는 아버지 우울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12]. 자녀 양육기에 있는 아버지의 우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선행연구들은 아버지의 우울이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3, 22,23].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우울은 부정적인 자녀 양육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아버지의 우울이 남아와 여아에 대한 거부적, 통제적인 양육방식에 영향을 주었고[12, 24],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우울 수준이 낮을수록 긍정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부부관계에서 경험하는 부부갈등은 부모의 우울 수준과 관련성이 있다. 부부간 갈등이 우울에 선행하며, 부부갈등이 정서적 문제를 유발하게 되며 우울 수준을 증가시킨다[25].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부간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남녀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25,26]. 국내연구에서도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우울감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영아기 자녀의 어머니는 남편과의 관계에 만족감을 느낄수록 부모기로의 전이에 필요한 심리적 적응에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영아기 자녀를 대하는 양육행동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기 자녀의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쳐,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아버지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4]. 부부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이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우울에 미

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버지의 부부갈등과 우울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할 때, 아버지의 부부갈등과 우울, 양육행동 간에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부갈등과 우울, 양육행동의 관련성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여 부부갈등과 우울, 양육행동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아버지의 부부갈등, 우울, 양육행동이 관련되는 과정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검증하기 위해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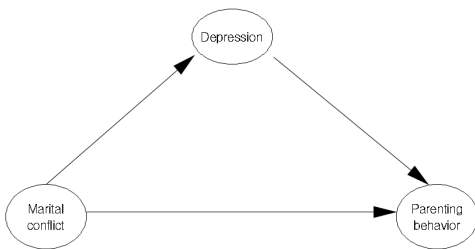


Fig. 1. Conceptual model

연구문제1 : 부부갈등과 우울 및 양육행동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연구문제2 : 부부갈등과 우울 및 양육행동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 방법

2.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PSKC)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유아 1,703명의 아버지로부터 수집된 자료이다. 한국아동패널은 전국 수준의 자료로, 2008년 의료 기관에서 출생한 전국의 신생아 가구를 모집단으로 층화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2,078가구가 1차년도 연구대상으로 추출되었다. 대상 유아가 만4세가 되는 2012년에 1,703가구를 대상으로 5차년도 자료가 수집되었다.

조사대상 유아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아가 833명으로

전체의 48.9%였고, 남아는 870명으로 전체의 51.1%에 해당하여 남아가 여아보다는 약간 많았다. 유아의 개월 수는 52개월 30.1%, 53개월 24.3%, 51개월 22.9%, 50개월 11.5%, 54개월 7.8, 49개월 2.7%, 55개월 0.9%로 나타났다.

2.2 측정도구

2.2.1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Markman 등의 부부갈등 척도를 수정하여 측정되었다[28]. 부부갈등의 문항내용은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남편 혹은 아내는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등의 8개 문항으로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2.2 우울

우울은 Kessler 등이 개발한 우울척도 K6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29]. 우울척도 K6은 간편형으로 제작된 6개의 문항으로, ‘당신은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힘이 드셨습니까?’, ‘당신은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슬픔에 빠져있어 어떤 일을 해도 기운이 나지 않고 힘드셨습니까?’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2.2.3 양육행동

양육행동은 Bornstein 등이 개발한 양육 스타일도구(PSQ : 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를 수정한 척도 중 온정적 양육 스타일의 6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문항 내용은 ‘나는 내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30]. ‘나는 내 아이에게 필요한 일들을 잘 만족시켜준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유아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SPSS 23과 AMOS 2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첫째, 부부갈등과 우울,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부부갈등, 우울, 양육행동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 포함된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었다. 측정 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26에서 .41사이로, 아버지의 부부갈등과 우울 간 상관계수가 가장 높고($r=.41, p=.01$), 우울과 양육행동 간 상관계수가 $-.26$ 으로 가장 낮았다. 부부갈등과 양육행동 간 상관계수는 $-.33$ 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부갈등과 우울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그리고 우울과 양육행동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Latent Constructs	1	2	3
1. Marital Conflict	1.00		
2. Depression	.413**	1.00	
3. Parenting Behavior	-.330**	-.264**	1.00
Average Variance Extracted(AVE)	0.612428	0.722853	0.651166
Construct Reliability (C.R.)	0.925377	0.939554	0.917294

** $p < .01$

3.2 적합도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χ^2/df , CFI, GFI, TLI, RMSEA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χ^2/df 는 3 이하일 때 매우 양호하고, 5이하일 때 양호한 수준으로 간주된다[31]. 또한, CFI, GFI, TLI는 0.9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라고 할 수 있고, RMSEA는 0.05보다 작으면 매우 적합한 수준, 0.05에서 0.1 범위이면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32].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에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하여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검증한 결과는 Fig.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55이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 모든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타당하게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df=7.041$ CFI=.920, GFI=.925, TLI=.939, RMSEA=.063으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3.3 구조모형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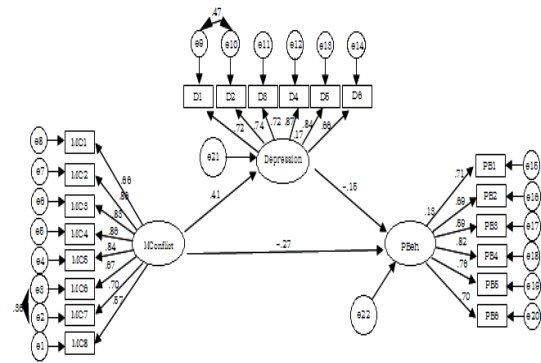


Fig. 2. SEM model predicting parenting behavior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df=7.041, p=.000$, CFI=.947, TLI=.939, GFI=.925, RMSEA=.063).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는 Figure 2에 제시되었다. 구조모형의 경로분석 결과와 경로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는 Table 2와 Table 3에 제시되었다. 각 경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2. Parameter estimates of the structural model

Path			Bootstrapping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Marital Conflict	→	Depression	.413**	.000	.413**
Depression	→	Parenting Behavior	-.153**	.000	-.153**
Marital Conflict	→	Parenting Behavior	-.267**	-.063**	-.330**

** $p < .01$, *** $p < .001$

Table 3. The decomposition of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Structural path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S.E.	C. R.	SMC (R ²)
Marital Conflict	→	Depression	.493***	.413**	.034	14.336	.171
Depression	→	Parenting Behavior	-.123***	-.153**	.024	-5.071	.128
Marital Conflict	→	Parenting Behavior	-.255***	-.267**	.030	-8.513	

* $p < .01$

부부갈등은 아버지의 우울($\beta=.413, p<.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우울 수준이 높았다. 아버지의 우울은 양육행동($\beta=-.153, p<.01$)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였다. 부부갈등은 아버지의 양육행동($\beta=-.267, p<.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였다.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부부갈등이 우울을 통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부부갈등은 아버지의 우울을 매개로 하여 양육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부부갈등을 많이 경험할수록 높아진 우울 수준을 통해 자녀에게 더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였다.

부부갈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총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효과 중 부부갈등이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우울을 통해 양육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부부갈등은 아버지의 우울을 통해 양육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를 대

상으로 하여 부부갈등과 우울, 양육행동의 관련성과 더불어 부부갈등, 우울, 양육행동이 관련되는 과정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우울, 양육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유아기 자녀 아버지의 부부갈등은 우울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쳐,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부갈등이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쳐,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아버지의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난 Yeon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24].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부정적인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밝혔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우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부부관계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문제에 의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 때문에 심리적인 건강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우울은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의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에게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버지의 우울이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3,22,23].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우울수준이 높은 아버지는 자녀에게 반응적인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자녀에게 덜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울로 인한 부정적인 인지가 자녀의 행동에 대한 왜곡된 지각, 즉 부정적 지각을 증가시킴으로써 온정이지 못한 양육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일 수 있다[33]. 우울한 부모는 양육행동에서 온정성은 더 적게 표현하고 통제적, 강압적, 비판적, 적대적으로 양육을 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남으로[34], 부모 자녀 간에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악순환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부부갈등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는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자신의 양육행동을 덜 온정적이라고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부갈등이 있을 때 아버지는 자녀에게 덜 긍정적이고 더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Kim 등의 연구결과와[14], 그리고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온정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Chae 등의 연구결과와 일관된다[15]. 아버지가 부부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부부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불만이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 그대로 반영되어 자녀에게 덜 지지적이며 자녀의 행동에 덜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부부갈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부갈등은 우울을 통해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부부갈등을 많이 경험할 경우 아버지의 개인적인 심리 정서 상태가 안정되지 못하고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자녀에게 온정과 지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우울을 통해 양육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Yeon 등의 연구[24], 그리고 우울과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을 포함하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 결혼만족도와 양육태도 간의 관련성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밝힌 Choi 등의 연구결과와 일관된다고 할 수 있다[23].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아버지의 우울을 통해 양육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부부관계와 심리적 건강이 유아기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과 관련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부관계는 부부 개인의 심리 및 정서 상태에 영향을 주며, 또 이는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와 심리적 건강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부부갈등은 우울 및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되므로 가족관계의 문제로 인한 가족원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자녀의 발달은 부모와 자녀를 통하여 세대 간 전달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부부관계와 부모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아버지가 유아교육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부모교육 및 부

모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부모 개인 및 사회의 노력이 요구된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개선해서 자녀가 잘 성장 발달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유아기 자녀 아버지의 부부갈등과 우울에 개입함으로써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우울을 통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함으로써 아버지의 부부갈등과 우울, 양육행동의 관련성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부부갈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더불어 우울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였으며, 아버지의 부부갈등과 우울이 양육행동과 관련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유아기 자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을 제시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련 과정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행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아버지의 경우에 부부갈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다른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J. Belsky, G. B. Spanier & M. Rovine. (1983). Stability and change in marria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3), 567-577.
DOI : 10.2307/351661
- [2] M. M. Weissman. (1987). Advances in psychiatric epidemiology : rates and risks for major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7(4), 445-451.
DOI : 10.2105/ajph.77.4.445
- [3] S. H. Goodman & I. H. Gotlib. (1999). Risk for psychopathology in the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 A developmental model for understanding mechanisms of transmission. *Psychological Review*, 106(3), 458-490.
DOI : 10.1037//0033-295x.106.3.458
- [4] P. Kane & J. Garber. (2004). The relations among

- depression in fathers, children's psychopathology, and father-child conflict :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3), 339-360.
DOI : 10.1016/j.cpr.2004.03.004
- [5] P. M. Lewinsohn, T. M. Olino & D. N. Klein. (2005). Psychosocial impairment in offspring of depressed parents. *Psychological Medicine*, 35(10), 1493-1503.
DOI : 10.1017/s0033291705005350
- [6] F. J. Elgar, R. S. Mills, P. J. McGrath, D. A. Waschbusch & D. A. Brownridge. (2007). Maternal and p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child maladjustment :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6), 943-955.
DOI : 10.1007/s10802-007-9145-0
- [7] A. Krishnakumar & C. Buehler. (2000). Interparental conflict and parenting behaviors : A meta analytic review. *Family Relations*, 49(1), 25-44.
DOI : 10.1111/j.1741-3729.2000.00025.x
- [8] R. Fauber, R. Forehand, A. M. Thomas & M. Wierson. (1990). A mediational model of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 The role of disrupte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1(4), 1112-1123.
DOI : 10.1111/j.1467-8624.1990.tb02845.x
- [9] J. Y. Cho & H. S. Doh. (2011). Pathways from interparental conflict to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through maternal support and control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32(2), 15-34.
DOI : kjcs.2011.32.2.15
- [10] G. Lee. (2008). *A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 of adolescents on adolescents' adap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11] H. Min & K. Kim.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onflict and child-rearing and school-aged children's depression in low income family and non-low income Famil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6), 33-41.
- [12] J. Jang, J. Kim & Y. Kim. (2011). Effects of paternal depression, marital relationship, and parenting style on problem behaviors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2(2), 79-107.
- [13] K. J. Kaczynski, K. M. Lindahl, N. M. Malik & J. P. Laurenceau. (2006). Marital conflict,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and child adjustment : A test of mediation and modera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0(2), 199-208.
DOI : 10.1037/0893-3200.20.2.199
- [14] M. Kim & Y. Kim. (2011). Family economic distress, paternal depression, marital relationship, controlling parenting style, and behavioral problems in young childre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5), 59-70.
DOI : 10.6115/khea.2011.49.5.059
- [15] Y. Chae & S. Kwak. (2017). The effects of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ing behaviors on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12(1), 1-13.
DOI : 10.21097/ksw.2017.02.12.1.1
- [16] I. Kim. (2016). The effect of marital conflicts perceived by fathers on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 : Mediating effect of p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care & Education*, 12, 127-142.
DOI : 10.14698/jkce.2016.12.02.127
- [17] S. J. Kwon, S. N. Oh & S. H. Lee. (2016). A study on related variables to young children's behavior problems : Children's, mothers', and peer relationships' variable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3(4), 385-406.
DOI : 10.22155/jfece.23.4.385.406
- [18] P. K. Kerig, P. A. Cowan & C. P. Cowan. (1993). Marital quality and gender differences in parent-child inte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6), 931-939.
DOI : 10.1037/0012-1649.29.6.931
- [19] P. Howes & H. J. Markman. (1989). Marital quality and child functioning :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Child Development*, 60(5), 1044-1051.
DOI : 10.2307/1130778
- [20] K. M. Lindahl & N. M. Malik. (1999). Observa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power : Relations with parenting in the tria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2), 320-330.
DOI : 10.2307/353751
- [21] E. M. Cummings & P. T. Davies. (1994).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1), 73-122.
- [22] S. Azak & S. Raeder. (2013). Trajectories of parenting behavior and maternal depression.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6(3), 391-402.
DOI : 10.1016/j.infbeh.2013.03.004
- [23] H. Choi, E. Yeon, Y. Yoon & Y. Hong. (2014). Relationships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ing attitude mediated by mothers' psychological

- backgrounds regard to their employment status.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84*, 57-84.
- [24] E. M. Yeon, H. O. Yoon & H. S. Choi. (2016).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incomes on the relationship among marital conflict, depression, and parenting attitude :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1(2)*, 1-28.
- [25] K. D. O'Lear, J. L. Christian & N. R. Mendell. (1994). A closer look at the link between marital discord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1)*, 33-41.
DOI : 10.1521/jscp.1994.13.1.33
- [26] V. E. Whiffen & I. H. Gotlib. (1989). Stress and coping in maritally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6(3)*, 327-344.
DOI : 10.1177/0265407589063006
- [27] H. S. Doh, M. J. Kim, M. K. Choi, S. W. Kim. & S. J. Cho. (2012).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nd mothers' anger and depression on the behavioral problems of preschoolers.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33(2)*, 145-164.
DOI : 10.5723/kjcs.2012.33.2.145
- [28] H. Markman, S. Stanley & S. Blumberg. (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USA : Jossey-Bass Publishers.
- [29] R. C. Kessler, G. Andrew, L. J. Cople, E. Hiripi, D. K. Mroczek & S. L. Normand.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DOI : 10.1017/s0033291702006074
- [30] M. H. Bornstein, C. S. Tamis-LeMonda, L. Pascual, O. M. Haynes, K. M. Painter, C. Z. Galperín & M. G. Pecheux.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DOI : 10.1080/016502596385820
- [31] T. M. Song & G. S. Kim. (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health welfare studies*. Seoul : Hanare.
- [32] S. H. Hong.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33] D. W. Leung & A. M. S. Slep. (2006). Predicting inept discipline : The role of parental depressive symptoms, anger, and attribu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3)*, 524-534.
DOI : 10.1037/0022-006x.74.3.524
- [34] M. K. Jung & Y. H. Kim. (2003). Maternal parenting experience, depression, marital conflict, and parenting behavior predicting school children's maladjustment.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1(8)*, 123-137.

저 자 소 개

이 형 실(Hyong-Sil Lee)

[정회원]



▪ 1995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부모역할, 가족관계, 심리적 적응